

독일 문화 탐방기

강릉원주대학교 독어독문학과
2024

순서

탐방 1일차: 인천-프랑크푸르트...4

탐방 2일차: 베를린1...8

탐방 3일차: 베를린2...18

탐방 4일차: 드레스덴...26

탐방 5일차: 다하우...36

탐방 6일차: 뮌헨...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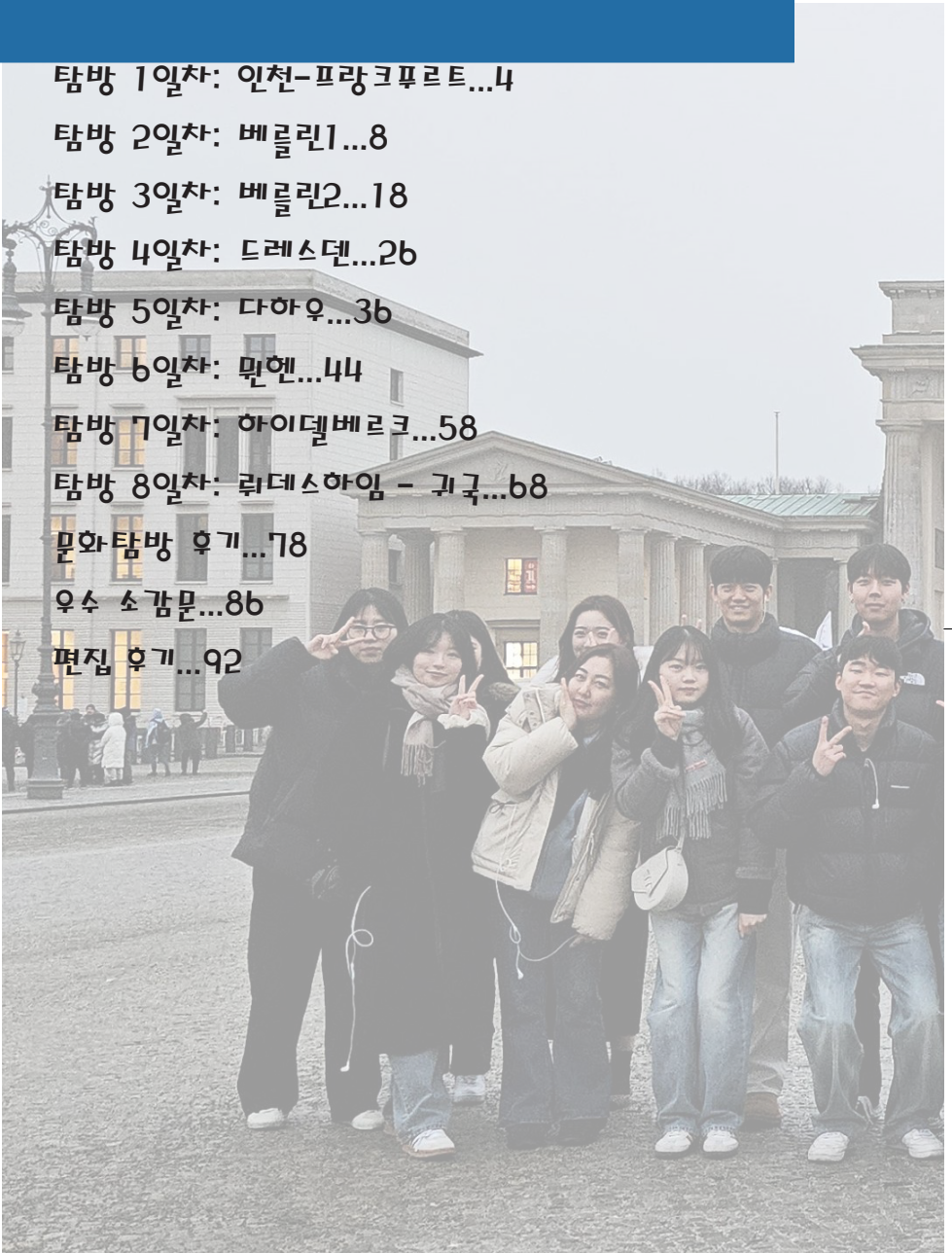
탐방 7일차: 하이델베르크...58

탐방 8일차: 뤼데스하임 - 귀국...68

문화탐방 후기...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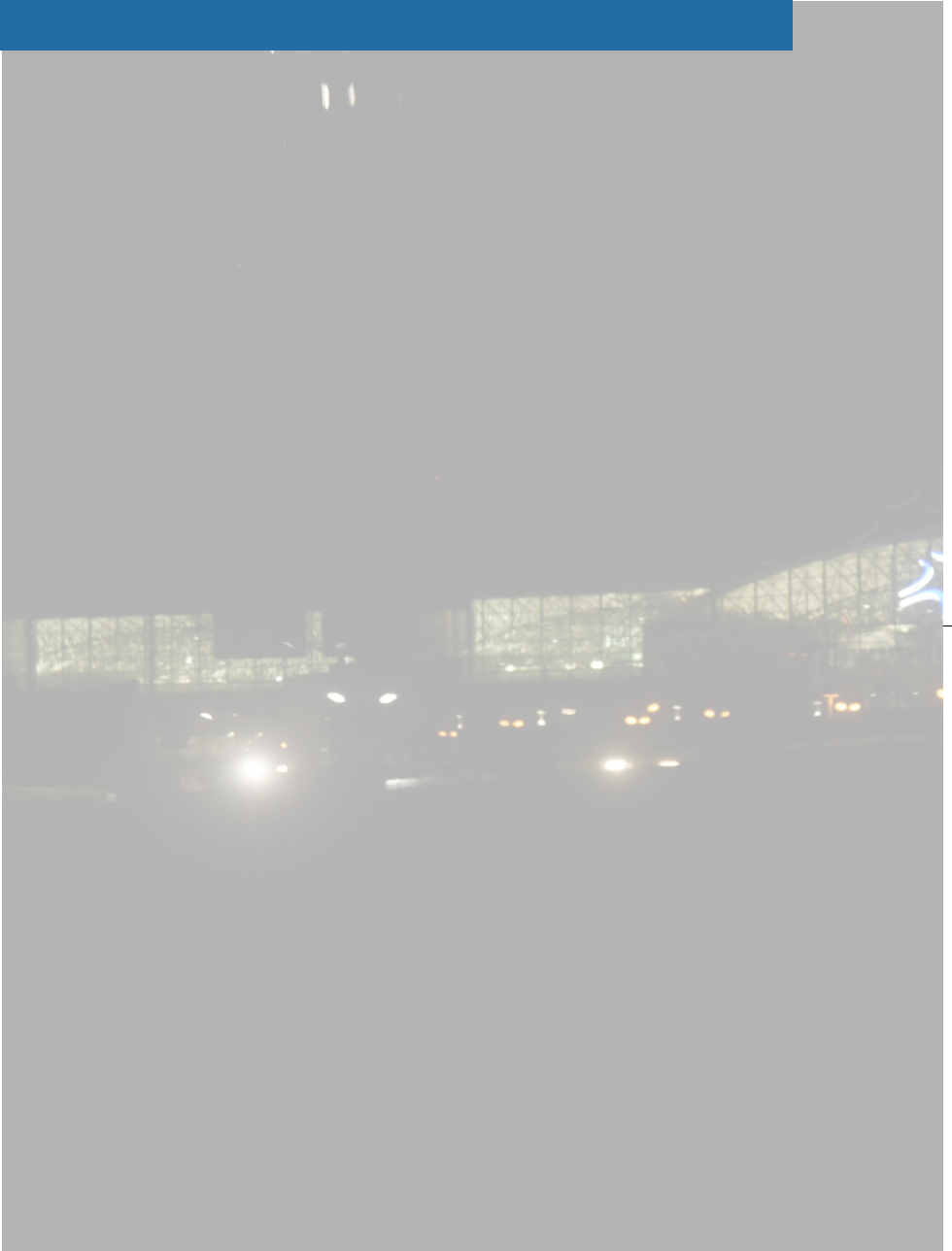
우수 소감문...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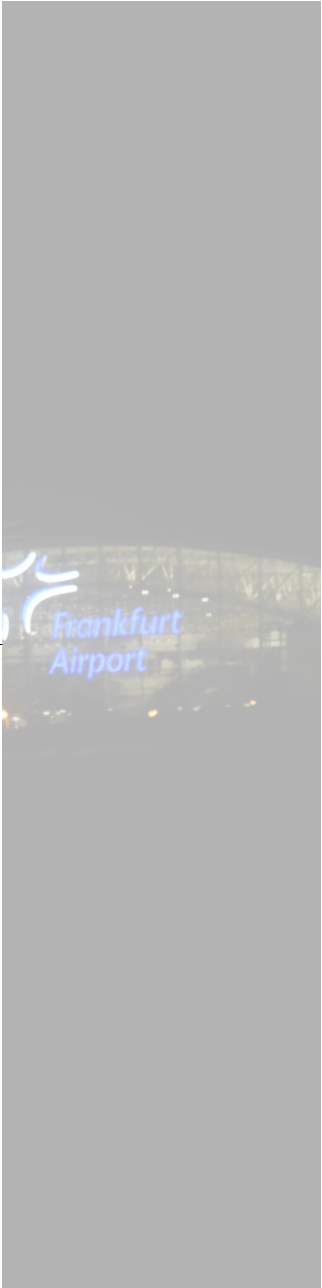
편집 후기...92





탐방 1일차: 인천 - 프랑크푸르트





인천 출발

프랑크푸르트 도착

설렘

- ◎ 여행을 준비하면서 미리 올라온 일정표를 보면서 혼자 구글에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다녀온 독일 여행 후기를 읽으면서 ‘내가 저 건축물을 볼 수 있구나...’ 하고 설레기도 하였다.(김수연, 20)
- ◎ 독일에 대해 찾아보고 또 찾아봐서 인터넷 즐겨찾기에는 독일 관련된 홈페이지들과 블로그로 꼭 찾다. 짐을 싸는 순간부터 너무 즐겁고 설렘다(이현정, 19).
- ◎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오지만, 먼 거리의 다른 문화를 가진 해외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이번 독일답사 역시 몇 년간 독일에 대해 배워왔음에도, 여행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을 지우긴 어려웠다(서승현, 17).
- ◎ 들뜬 마음에 잠을 설치고 서둘러 인천 터미널에 도착하니 5시 20분, 가장 먼저 도착했다(문일권, 21)
- ◎ 14시간 비행은 어려워. 14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이현정, 19)
- ◎ 비행 시간은 예상보다 길었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장요운, 20)
- ◎ 2024년 1월 11일 인천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14시간 넘는 시간이 걸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김상근, 17).



프랑크푸르트 도착과 첫 식사

- ◎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지만 그래도 첫 날 프랑크푸르트에서 먹은 소시지와 맥주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김찬형, 20)
- ◎ 첫 메뉴는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올법한 하울 정식이 나왔다. 계란 프라이, 소시지, 베이컨 등 여러 음식이 나왔다. 독일 소시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왔지만 너무 짠다. 베이컨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래도 같이 나온 맥주가 부드러워서 좋았다(이태수, 19).
- ◎ 독일이 맥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여서 기대했는데 맥주 가격이 물보다 싼 것을 보고 독일 사람들이 물 대신 맥주를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 현지에서 음식과 맥주를 먹으니 여행의 시작이 실감났다(김주상, 19).



탐방 2일차: 베를린 1일





베를린으로 이동

홀로코스트 기념물

브란덴부르크 문

연방의회 의사당

훔볼트대학 방문

베를린으로 이동

◎ 루프트한자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초콜릿을 받았다.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초콜릿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승무원은 우리가 단체 여행객인 걸 알았는지 초콜릿을 많이 주셨다. 그리고 승무원과 스몰토크를 했다. 한국어가 아닌 타국의 언어로 대화를 한다는 게 내가 조금 멋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김지유, 22).

◎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이동해 베를린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루프트한자 항공 비행기에탑승했는데 출발이 약 1시간 동안 지체되었다. 루프트한자 비행 소감은 “초콜릿이 맛있다.”이다. 지유가 내리기 전에 승무원께 초콜릿을 더 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승무원께서 초콜릿을 되게 많이 주셔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다(오유민, 20)

◎ 처음 겪어본 독일의 겨울은 너무 추웠다. 기온만 보자면 한국과 비슷한 편인데, 체감상으로는 독일이 한국보다 더 추웠다. 공기에 물방울이 있는 느낌이라 그 습함이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더 추운 느낌이라고 할까(김수연, 19).

◎ 베를린은 서울처럼 익숙한 고층 건물의 느낌을 받아 유럽의 도시 풍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유럽은 모두 여러 양식의 성당과 구식 건물들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유혜인, 19).

◎ 이번 답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중 하나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다. 베를린에서는 이틀 동안 머물며 여러 장소를 갈 수 있었다. 독일의 건축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웅장하고 멋있었다(김주상, 19).



홀로코스트 기념물



◎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간단히 홀로코스트 기념물이라고 하는 이 기념물은 2005년 홀로코스트로 살해된 유대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이다.

◎ 베를린 중심가의 비싼 땅에 이 기념물을 조성한 이유는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보면서 기억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었다(이태수, 19).



브란덴부르크 문 & 연방의회 의사당



- ◎ 초기 고전주의 양식의 개선문인 브란덴부르크 문. 과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경계. 1990년부터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의 상징으로 간주됨. 베를린의 랜드마크이자 독일의 상징.
- ◎ 독립문이 연상되네 (이태수, 19).



◎ 브란덴부르크 문을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눈으로 보니 느껴지는 바가 달랐다. 건축물을 보면서 인솔자님이 관련된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독일 분단 시절 동서 베를린의 경계였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베를린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셨다(김주상, 19).



◎ 브란덴부르크 문 뒤쪽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타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니 광화문광장이 떠오르면서 친숙한 느낌을 받았다. 귀국해서 뉴스를 보니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 유입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벌어졌다고 한다(김지구, 21).



◎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 첫 연방회의가 개최된 장소. 재통일 이후 우리들이 새로 설치되었고, 정면에는 'DEM DEUTSCHEN VOLKE' (독일 국민에게)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문일권, 21).

훔볼트 대학 방문



◎ 저녁에는 훔볼트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시는 김 선생님을 만났다. 김 선생님은 대학 본관 맞은편의 베벨광장부터 본관 건물 내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훔볼트 대학은 물론이고 독일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 해주셔서 유익했다(김 주상, 19).



◎ 1933년3월10일 나치가 ‘반독일 정신’에 맞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도서관과 서점에서 유대인, 공산주의자, 평화주의자, 반정부 인사들의 저서 2만5천권을 약탈하여 이곳 베벨광장에서 불태웠다. 이러한 행위는 독일 대학 전역에서 일어났다. 이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바닥에 텅빈 책장 형태의 기념관이 설치되었다. 곁에는 하인리히 하이네의 글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 “이것은 서막일 뿐이다.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도 불태운다 (Dies war ein Vorspiel nur, dort, wo man Bücher verbrennt, verbrennt man auch am Ende Menschen).”





◎ 훔볼트 대학 기념 사진. 뒤의 글은 “철학자들은 세상을 다양하게 해석해왔을 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Die Philosophen haben die Welt nur verschieden interpretiert, es kommt darauf an, sie zu verändern)”라는 카를 마르크스의 문구.



◎ 김 선생님의 훔볼트 대학 및 독일 학제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



◎ 베를린 야경



◎ 1809년에 세워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본관

탐방 3일차: 베를린 2일





체크포인트 찰리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베를리너 돔

빌헬름 황제 기념 교회

포츠담 광장

체크포인트 찰리



◎ 체크포인트 찰리는 베를린 장벽을 통과하는 국경 검문소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커다란 군인의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서베를린 지역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동독 군인이 지켜보고 있고, 동베를린 지역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미군이 지켜보는 사진이었다(김주상, 19).

◎ 첫 일정으로는 체크포인트 찰리와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 갔다. 수업에서 보던 것을 실제로 보니 신기했다(이태수, 19).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 1990년 베를린 장벽 동쪽의 약 1.3Km 길이의 내후벽에 세계 각국의 미술가들이 평화, 화합, 반전 등을 주제로 그린 105점의 그림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갤러리. 아래 사진의 중앙에 유명한 '사회주의 형제의 키스'가 보인다.



베를리너 돔

◎ 박물관 섬 입구에 위치한 베를리너 돔은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 교회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높이가 약 100m에 달하는 독일에서 가장 큰 교회이다.

◎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돔 천장이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에 모든 정성을 쏟은 느낌이 들었다. 베를리너 돔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로 많은 계단 올라가서 보는 파노라마 뷰가 있는데, 올라가기가 힘들었지만 베를린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김주상, 19).



빌헬름 황제 기념 교회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일부 파괴되었지만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교회 내부에는 폭격 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전쟁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오른쪽의 현대적 건물은 새로 건축한 교회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 내부의 푸른색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인상적이다(김주상, 19).

◎ 베를린 문화 탐방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곳에서 동서독간의 갈등과 통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이유현, 17)

포츠담 광장

◎ 포츠담 광장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광장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에 독일 최초의 신호등인 교통탑(Verkehrsturm)이 1924년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광장 모퉁이에 서 있다. 광장을 가로질러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이곳은 쇠락한 채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장벽이 철거되었고, 장벽의 일부는 광장에 보존하고 있다.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 독일은 이 광장을 재개발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초빙하여 소니센터, 콜호프 타워, 시네마테크, 여러 극장 등 독특한 건축물들을 건설하였다. 오른쪽 사진은 광장의 교통탑, 베를린 장벽, 소니센터이다.





베를린 자유시간

◎ 베를린에 도착하고 첫날 저녁 태수 형, 주상이 누나, 헤인이 누나 이렇게 넷이 숙소에서 나와 호텔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갔는데, 정말 독일 현지 로컬 술집 느낌의 바여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곳에 있던 술에 취한 아저씨들도 너무 친절했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해서 너무 좋았다(오유민, 20).

◎ 독일 문화 탐방 소식을 듣자마자 베를린 일정에 맞춰 베를린 필하모니 연주회를 예매했다. 연주곡은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앙리 뒤티외의 교향곡 1번이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연주를 들으며 느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없는 다리의 계단에 걸터앉아 눈물을 흘렸다. 눈이 녹은 후 고인 웅덩이 위로 비치는 베를린의 불빛들이, 오늘 본 연주자들 악기 마다의 음이 떠다니는 거 같았다. 그날 밤은 독일의 모든 것이 부러웠다(김지구, 21).



◎ 서점을 둘러보고 우리는 무스타파 케밥집으로 갔다. 독일 여행하면서 이 집이 제일 인상이 깊게 남았고, 나중에 베를린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또 갈 장소이기도 하다. 주문한 다음 약 1시간을 기다렸다. 얼마나 맛있었냐면 고기의 육즙이 목구멍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중화시켜주는 야채 또한 밍밍하지 않고 달콤해서 느끼함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었다. 그리고 같이 있는 빵도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이럴 거면 다른 친구들과 형 누나들 것도 사줄 걸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만 먹기 아까웠다. 베를린에 와서 이 케밥을 먹지 못한 사람은 베를린에 다시 와야 한다는 찬형이 말에 지구와 나는 동의했다. 이후 독일 음식을 케밥이랑 항상 비교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문일권 21, 김찬형 20, 김지구 21).



◎ 독일의 교통수단을 처음 접했을 때 당황했던 모습이 기억이 남는다.

친구들과 다 같이 베를린에서 첫 자유시간을 받아 전철을 타고 우리가 찾은 카페로 이동할 때였다. 수월하게 표를 사고 전철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아 1시간이나 허비하게 되었다. 티켓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는 다른 교통수단 트랩을 탔는데, 이때는 전과 달리 헛갈리지 않고 쉽게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이선희, 20).

◎ 동독박물관: 과거 독일 분단 시절 공산권인 동독 사회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당시 동독 총리는 안전을 이유로 동구권 자동차가 아닌 자유 진영의 볼보 자동차를 탔다고 한다. 그리고 반정부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고 한다(신성철, 19).



◎ 슈퍼에서 결제할 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해진 마음에 18유로를 80유로로 잘못 알아듣고 20유로짜리 네 장을 내밀었더니 점원이 20유로 지폐 한 장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멋쩍게 웃자 무표정하던 점원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여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웃었던 기억이 남았다(김수연, 19).

◎ 펍은 독일 문화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축구 경기를 보며 즐기는 다양한 맥주와 현지인들과의 소소한 대화는 나에게 독일 생활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는 듯하며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했지만 노래 부르고 춤추며 다가와 주문을 도와주던 독일인들의 친절함 모습은 굉장히 신기했다(유혜인, 19).

◎ 베를린에서의 이틀은 모든 일정은 나에게 인상 깊었다. 베를린 여행의 핵심은 역사 투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는 과거에 대한 현대인의 견해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심오한 고민이 깃들어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관광 포인트였다. 유명한 그림도 만나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 또한 자유 일정을 통해서 현지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 도전 속에 실패와 역경도 존재했지만 경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김주상, 19).

탐방 4일차: 드레스덴





- ☑ 츠빙어
- ☑ 성모교회
- ☑ 글주의 행렬
- ☑ 드레스덴 왕궁
- ☑ 엘베 강변



드레스덴

- ◎ 드레스덴은 내가 원했던 유럽, 독일, 딱 그것, 너무 멋진 곳!(유혜인, 19)
- ◎ 드레스덴은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화려한 성당과 긴 엘베 강의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김수연, 19).
- ◎ 드레스덴에서 버스에 내린 순간 유럽이다, 이게 유럽이야 라고 느꼈던 도시였다. 특히 도시에 있는 다양한 건축물들이 다 유럽 같았고 내가 그려왔던 유럽의 그 모습 그 자체였다. 날씨는 추웠지만, 드레스덴의 건축물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설렘다(이현정, 19).
- ◎ 드레스덴은 내가 독일 답사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지금 생각해도 제일 기억에 남는 도시이고 독일을 다시 간다면 꼭 재방문하고 싶은 도시이다. 답사 중에 본 독일 중 가장 웅장했고 가장 평화로운 도시였다. 엘베강을 지나는 다리를 건너는데 너무 황홀했다. 황홀하다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 다리에서 한참을 구경하고 사진 찍고 내가 보고 있던 장면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는 풍경이 너무 달라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리가 독일답사 중 가장 인상 깊게 남겨졌다(김지유, 22).

츠빙어

◎ 엘베 강변에 위치한 츠빙어는 정원을 포함한 궁전 단지로서 중요한 독일 바로크 건축물로 손꼽힌다. 프라우엔 교회(성모 교회)와 더불어 드레스덴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다. 드레스덴은 2차대전 중 여러 번의 공습으로 도시의 약 60%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도심에서 약 15km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 츠빙어 궁 입구의 크라운 게이트



◎ 복구 중인 정원

성모 교회(프라우엔 교회)



◎ 알프스 이북에서 가장 큰 석조 돔을 가진 바로크 양식의 교회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 끝날 무렵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 주요 지지대가 녹거나 파괴되어 건물이 무너져버렸다. 잔해는 동독 시절 전쟁 기념관에 보관되었다. 1994년부터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 2005년 완공 봉헌예배가 거행되었다. 광장의 동상의 인물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이다. 교회 외벽의 검은 돌은 전쟁 기념관에 보관되었던 원래 건물의 잔해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색이 검은 것은 폭격의 열기에 그을린 흔적이라 한다.



◎ 화려한 내부

군주의 행렬



◎ 드레스덴 성의 슈탈호프 외벽에 있는 '군주의 행렬(Fürstenzug)'은 원래 작센의 통치자들의 기마행렬을 그린 대형 벽화였는데, 1900년 초에 비바람에 침식되지 않도록 약 23,000개의 이음매가 없는 마이센 도자기 타일로 교체되었다. 높이가 10.5m, 길이가 102m인 이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 작품으로 간주된다.

◎ '독일 역사와 문화탐방' 수업에서 내가 조사하고 발표한 도시가 하이델베르크와 드레스덴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이 두 곳을 갈 수 있어서 난 너무나 설레었다. 이곳 드레스덴에서 제일 보고 싶었던 '군주의 행렬'을 볼 수 있었다. 섬세한 디테일과 크기에서 나오는 웅장함이 너무나 멋있었다. 이런 느낌을 '정조 반차도'를 처음 보았을 때 느끼었던 감동을 한 번 더 받았다(김지구, 21).

◎ 단체관광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드레스덴이다. 건축물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설명 없이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았다. 특히 드레스덴의 야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군주의 행렬'이라는 도자기 타일로 만들어진 벽화가 있는 길이었는 데 매우 인상 깊었다(오유민, 20).

드레스덴 왕궁

드레스덴의 역사적 인물 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강건왕 아우구스트 2세(August der Starke, 1694-1733)이다. 작센의 선제후인 그는 폴란드 왕과 리투아니아 대공도 겸했다. 뛰어난 체력으로 강건왕이란 별명을 얻었던 그는 드레스덴을 유럽의 중요한 문화 중심지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그는 화려한 궁전들을 건축하고, 그림과 예술품을 수집하였으며, 최초의 공공 박물관인 그린볼트(Grünes Gewölbe)를 설치하였다. 그는 왕가에서 대대로 수집했던 예술품과 희귀품을 방문객이 볼 수 있도록 전시실을 마련한 것이다. 그린볼트는 유럽에서 가장 큰 보석 및 공예품 컬렉션으로 손꼽힌다. 현대 드레스덴 왕궁에는 그린볼트 외에도 주화 컬렉션, 무기 컬렉션 등 5개의 박물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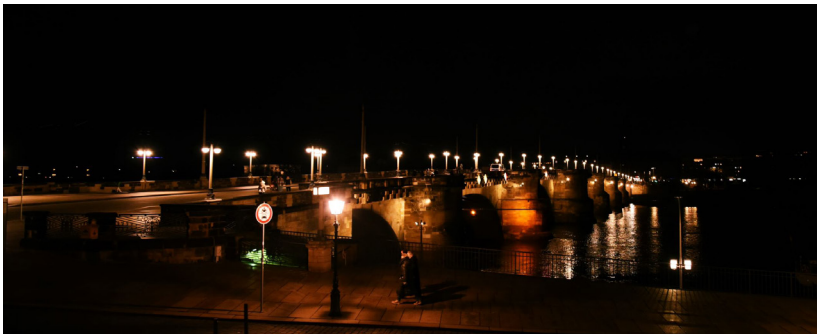


● 드레스덴 왕궁의 외부 전면과 후면



엘베 강변

◎ 드레스덴을 가로지르는 엘베 강



드레스덴 자유시간

◎ 박물관의 그린볼트는 별도의 티켓값 12.5유로를 추가로 해야 했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화려한 장식품들과 다이아몬드가 빼곡히 차 있었다. 얼마나 많은지 가까이서 보면 보석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이 아플 정도였다(김상근, 17).



◎ 자유시간에 레지던트 궁정을 관람했다. 궁정 내부는 물론이고 정말 화려한 장신구와 무기를 볼 수 있었다. 관람 후 나오니 밤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인근 쟈퍼 오페라하우스와 브뤼엘의 테라스를 카메라로 보니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노랑고 적색의 빛이 어울려 몽환적인 모습을 말이다(김지구, 21).

◎ 교통박물관(Vekehrsmuseum) 관에 갔더니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었다. 신기한 자동차, 오토바이, 기차 등 다양한 탈것들 덕분에 재밌게 관람을 즐길 수 있었고, 특별했던 것은 빈폴 자전거였다. 직접 타 보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이현정, 19)



◎ 교통박물관은 정말 넓었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해양, 선박, 철도, 항공, 엔진, 자동차, 자전거 등 교통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놓고 체험할 수 있게 해놓아서 대부분 자녀와 방문한 부모님들이 많았다. 교통 테마에 따른 교통수단만 전시해둔 것이 아니라, 관련 직업 종사자와 의류들을 같이 전시해두어서 더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만약 교통에 관심이 있고, 박물관을 가고 싶다면 이 교통 박물관을 정말 추천하고 싶다(김수연, 19).

◎ 드레스덴에서 있었던 일인데, 암전히 길을 걷다가 까마귀의 똥을 맞아 버렸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새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 일로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기만 하면 정말 소름이 돋는다. 로또를 샀어야 했는데 아쉽다(장요운, 20).

◎ 하늘에 까마귀들이 많이 날아다녔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요운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바로 요운이에게 똥을 싸버렸다. 새똥 맞는 일이 한국에서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드레스덴까지 와서 새똥을 맞는 일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유사하다. 요운이는 마음이 안 좋았겠지만,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줬다(오유민, 20).

◎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드레스덴에서 점심으로 슈니첼과 치즈 안에 들어 있는 감자였는데 감자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기억날 것 같다. 그리고 뮌헨에서 먹은 닭고기 요리도 너무 맛있었다(오유민, 20).



◎ 엘베 강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금방 어둑해졌는데, 해가 지고 난 드레스덴의 야경은 더 아름다웠다. 거리를 구경하다 노랫소리에 이끌려 가보니 프라우엔 교회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다.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데 날씨가 추워서 구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날 들었던 에드시런의 perfect는 도시 분위기와 잘 어울려 여행 내내 흥얼거렸고, 너무 추웠던 것도 잠깐 잊었던 시간이라 앞으로도 종종 생각날 것 같다(이시아, 21).



탐방 5일차: 다하우





☑ 다하우 강제수용소

다하우 강제수용소(KZ Dachau)

◎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는 처음엔 나치 체제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구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1938년 '수정의 밤' 이후 유대인을 수용하였고, 이후 유럽 전역의 점령국에서 반나치주의자, 유대인, 집시 등의 수감자를 이송해 왔다.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다하우는 강제 노동 수용소이다.

◎ 12년의 운영 기간(1933~45) 동안 총 수감자는 최소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약 4만 명이 사망했다. 1945년 미군에 의해 해방되었을 당시 수감자 약 3만 명 중 약 1만 명이 티푸스 등의 병에 걸린 상태였다. 수감자들은 과다 수용, 영양실조, 열악한 처우, 폭력 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생활했다.

◎ 수용소 정문에는 "Arbeit macht frei(일하면 자유로워진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아우슈비츠 등 다른 수용소에도 사용되었다. 이 문구는 나치가 언어를 오염시킨 사례 중의 하나이다. 노동이 인간 행복의 기본 조건이다 또는 게으름 피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낫다는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나치는 이 문구를 강제로 구금시키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착취하고 모욕하고 살해하는 비인도적인 행태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다. 노동을 통한 행복 추구라는 원래의 의미가 나치에 의해 노동을 통한 인간 말살이란 의미로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다.



◎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Endlösung der Judenfrage): 간단히 '최종 해결책'이라고도 한다. 나치는 독일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을 유대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해결책의 실행이 난관에 부딪히자 1939년부터 최종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미 이때부터 유대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1942년 베를린 하벨만에서 열린 회의(Wannseekonferenz)에서 최종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었다. 최종 해결책이란 유대인의

추방이 아니라 모든 유럽 유대인을 생물학적으로 말살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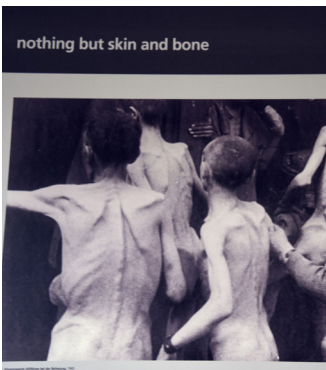
◎ 생체 실험: 수용소 의사들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병사들을 위한 수술 실험, 결핵 실험, 말라리아 실험, 조종사나 잠수병을 위한 고고도 실험과 저체온증 실험 등 생체 실험을 자행하였다.

◎ 처음 7년 동안 시체를 뮌헨의 화장터로 옮겨 소각했으나, 사망자 수를 은폐하기 위해 가스실이 딸린 소각장 건물을 세웠다. 소각장은 수용소와 가깝지만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수감자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 샤워실(Brausebad)이란 팻말이 붙어 있는 가스실과 소각장

◎ 피골이 상접한 수감자와 이를 형상화한 기념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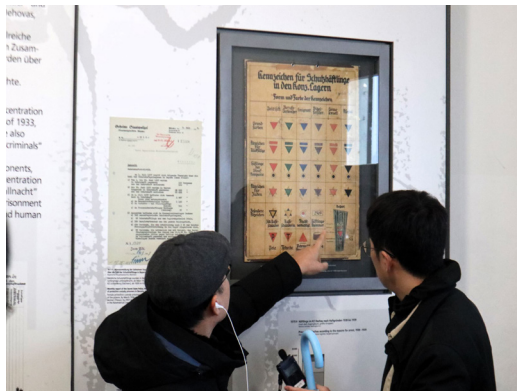


수용소 견학 소감



◎ 다하우 강제수용소다. 말로만 듣던 가스실과 실제 사용한 화장터를 두 눈으로 보니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 수용소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대문형무소가 생각났다. 야만의 역사를 반성하기 위해 가해자가 남겨둔 기념관은 올바른 반성의 태도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역사를 생각했을 때 그에 반하는 일본의 태도 차이가 너무나 비교되었다. 관람한 날의 날씨가 비가 오고 흐렸는데 수용소를 다시 나올 때 먹먹함이 가득한 상태로 나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인 시대에 살고 있다. 모두가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는 소망이다(김주상, 19).

◎ 수 많은 유대인을 비롯하여 정치범, 동성애



자, 장애인이 끌려간 곳인 다하우 수용소(KZ)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수감자들은 영양실조와 취약한 위생으로 고통을 받았고 가스실과 소각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이곳에서 현대의 어두운 역사를 알 수 있었고 역사 교육의 중요성 또한 생각할 수 있었다(신성철, 19)



◎ 다하우 수용소에서 가이드님의 설명을 듣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태수, 19).





◎ 장거리를 이동해서 간 다하우 수용소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매우 컸다.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생활과 그들이 겪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쉬운 점은 건조한 날씨와 건조한 호텔방 때문에 목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김상근, 17).



◎ 다하우 강제수용소 날씨 때문인지 유독 어두침침하게 보였다. 문 앞의 건물에서부터 무엇인가 서대문 형무소의 문처럼 영혼이 없다. 밖은 추운 날씨인데 가스실과 소각장의 온도는 더 싸늘하다. 또 다른 곳에서 수용자의 생활 시설을 보았다. 수용소를 나오면서 올려다본 하늘은 푸른 잿빛으로 얼어붙었다.(김지구,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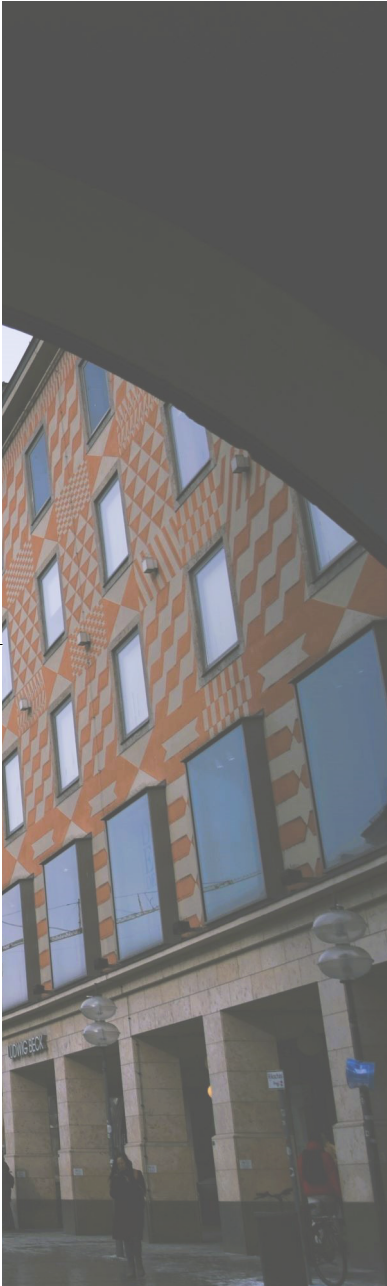


◎ 점심은 중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숙주가 아삭함과 불맛이 있어서 제일 맛있었다. 다하우 수용소 방문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황량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동네 같지 않았다. 내가 수업 시간 발표 때 준비했을 때 구글에서 본 사진들이 그대로 수용소에 있어서 놀랐다 5일차는 다하우 수용소 밖에 가지 못했지만 제일 인상이 깊었던 곳 같다(임찬서, 18)



탐방 6일차: 뮌헨





마리아 광장 & 시청사

성모 성당

성 미카엘 성당

아잠 성당

마리아 광장 & 신 시청사



◎ 뮌헨 구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한 신고딕 양식의 신 시청사. 구 시청사의 공간부족으로 인해 새로 건설된 이 청사(1867-1909)는 전면의 길이가 약 100m에 달한다.



◎ 시청사 앞의 마리아 광장은 뮌헨 도심의 핵심적인 광장이자 보행자 전용 구역의 시작점이다.



◎ 글로켄슈필(Glockenspiel): 85m 높이의 시계탑에선 매일 11시와 12시(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5시 추가)에 43개의 종소리에 맞춰 약 15분 동안 실물 크기의 인형들이 공연한다. 매일 오후 9시에는 천사가 아이에게 축복하는 동안 야경꾼이 호른을 연주한다.

◎ 저번 학기 수업 시간에 독일에 서 유명한 건축물을 조사하는 과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사를 하다가 마리아 광장을 처음 접했다. 마리아 광장은 뮌헨 관광의 핵심이자 시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매일 하루 2~3번 시계탑에서 펼쳐지는 인형극으로 유명한 광장이다. 마침내 학술문화답사를 통해 인형극을 직접 볼 수 있어 굉장히 신기했고, 나중에 다시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이선희, 20).



◎ 마리에네플라츠. 생동감 넘치는 도심지. (이유현, 17)

◎ 뮌헨은 활발한 도시답게 화려한 성당, 많은 사람 그리고 둘러보기 좋아 관광의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김수연, 19).



◎ 마리아 광장 중앙에는 높은 기둥 위에 초승달 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황금빛 성모상이 안치된 '마리아 기둥 (Mariensäule)'이 자리하고 있다. 19세기에 이 기둥은 도로원표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번지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기둥에서 멀어질수록 번지수도 커진다.

◎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도시는 단연 뮌헨이었다. 완전히 현대화된 베를린과 달리 옛 보도를 따라 신축건물과 구건물이 어우러져 독일의 모습을 잘 보여줬고,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증거인 성당들과 시청들 역시 잊기 힘들 정도로 대단했다. 더욱이 독일 여행 동안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정말 손꼽았는데, 뮌헨에 방문해 돌아다니던 날에는 해를 볼 수 있어서, 여행의 피로와 우중충하고 눈오던 날씨에 대한 피로감 역시 깔끔히 날려주었다. 대표적으로 성모성당과 성 미하엘 교회, 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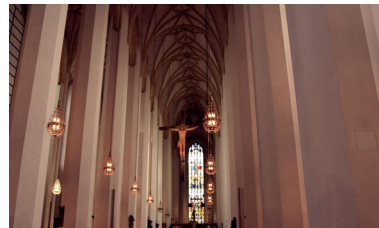
광장과 시청까지 그리 넓지 않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 이후 주어진 자유시간까지 모두 털어 돌아다닐 만한 곳이었다. 관광 목적으로도, 교육 목적으로도, 이후 쇼핑을 목적으로 뒤도 그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도시였다. 뮌헨의 구시가지는 반대로 구시가지에 신식건물들이 들어섰다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도심 이곳저곳에 녹아들어 있었으며, 지하철 역시 주요한 곳들에 모두 연결되어 구경하고자 했던 모든 곳을 이동하기도 수월했다(서승현, 17).

성모 성당(Frauenkirche)



◎ 마리아 광장에서 신청사를 바라볼 경우 서쪽에 푸른 돔의 탑이 보인다(사진 왼쪽). 이 독특한 형태의 벽돌 탑은 성모 성당 출입구에 있는 2개의 탑 중 하나이다. 돌 대신 벽돌로 건축한 고딕 건축물인 소위 '벽돌 고딕(Backsteingotik)'은 첨탑이나조각 등 화려한 외부 장식이 결여된 소박한 형태를 지니지만 내부에서 보면 첨두아치 창이나 리브 볼트 등 고딕 양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신고딕의 신청사와 벽돌고딕의 성모 성당).

◎ 뮌헨에서 성모 성당을 방문했다. 두 개의 첨탑이 우뚝 솟은 성모교회는 후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고 98.5m로 이 구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뮌헨의 상징이다. 내부가 심플하고 담백하지만 스테인드글라스는 엄청나게 섬세해서 더욱더 인상적이었다. 보통 한국의 교회는 내부 장식이 화려하지 않는데 이와 대비되어 더욱 흥미로웠다(김주상, 19).





◎ 성모 성당의 시계탑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았던 경치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두 탑 중 오른쪽의 남쪽 탑의 전망대는 관람할 수 있었다. 때마침 성당 전망대가 문을 닫기 직전에 올라, 뮌헨 도심지로 떨어지는 노을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 모두 볼 수 있었다. 도시 지평선 멀리 바이에른 알프스까지 보일 만큼 맑은 하늘 덕분에 그간 봐왔던 그 어떤 노을 보다는 더욱 아름다웠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한 풍경이었다. 처음엔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아 전망대 자체를 오를지 말지 고민하다 입장한 것이었는데, 다행히 중간부터 엘리베이터가 있었을뿐더러,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 본 뮌헨의 모습과 지평선 위의 알프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도시 전체를 덮는 노을을 구경하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그 광경은 정말이지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다(서승현, 17).



성 미카엘 성당

◎ 16세기 말에 건축된 이 성당은 대천사 미카엘의 이름을 딴 카톨릭 성당이다. 이 예배당은 바이에른 반종교 개혁의 정신적 중심지였다. 전면 상단의 삼각형 박공 위쪽 벽감에는 지구를 들고 있는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아래쪽 벽감에는 대천사 미카엘이 있다. 아래쪽 벽감에는 6명씩 2열로 12명의 역사적인 통치자들의 조상이 설치되었다.



◎ 그리고 성 미하엘 교회에 갔는데, 내부가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다. 성 미카엘 성당은 아치형 천장 규모로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이어 세계 2위로 알려져 있다.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로, 건물 외관에 백색과 금색의 장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부 인테리어 외에도 파이프 오르간과 금색 장식의 제단, 미카엘 조각상을 볼 수 있었다 (김주상,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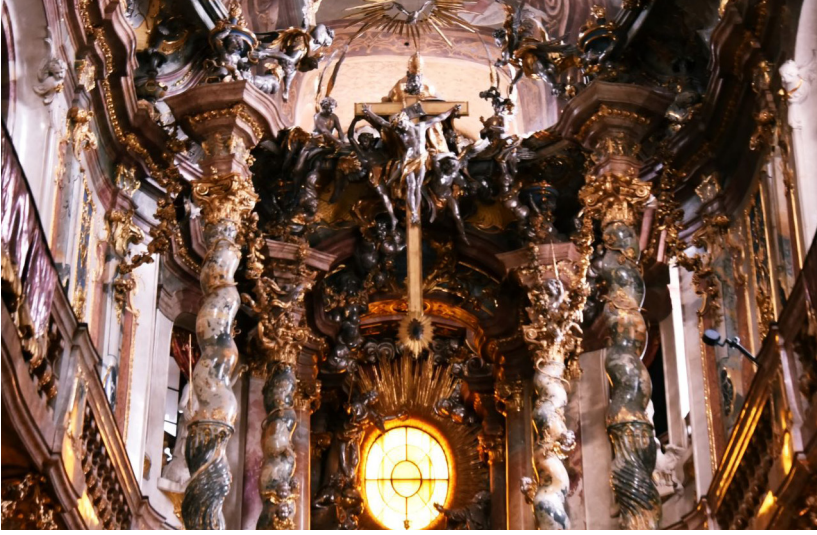


아잠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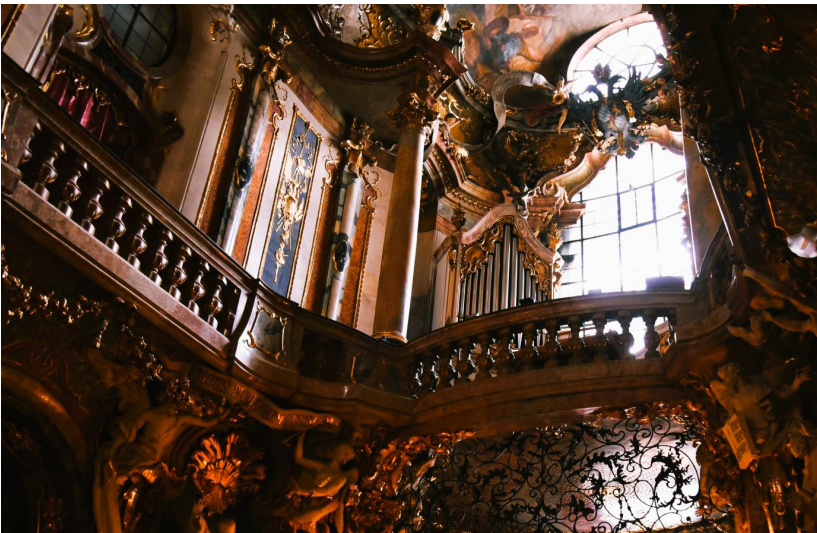


- ◎ 교회 전면부가 수리 중이라 아쉬웠다. 우측은 원래 모습(© wiki).
- ◎ 공식 명칭은 성 요한 네포무크 성당이지만, 아잠 형제가 1733년부터 13년에 걸쳐 건축했기 때문에 아잠 교회라 불린다. 형제는 모두 당시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 동시에 건축가였다. 이 교회는 중요한 후기 후기 바로크 건축물로 손꼽힌다.
- ◎ 왼쪽 집에 살던 동생 아잠은 개인 예배당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창을 통해 중앙 제단이 보이도록 설계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는 달리 제단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다.





◎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아잠 성당: 개인 예배당이라 내부는 아담하지만 다채로운 조각들과 화려한 장식, 현란한 색감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뭐든 사진보다 실물이 나은 건 사실이지만 아잠 교회는 꼭 실물로 봐야 화려함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이선희, 20).



뮌헨 자유시간

◎ 뮌헨에서는 역시 알리안츠 아레나를 방문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이적하면서 유명했던 이름이 더욱 알려진 바이에른 뮌헨,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구장이다. 이 구장은 특유의 외형으로도 유명한데 경기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스타디움 외관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처음 멀리서 봤을 때부터 그 웅장함에 나는 순식간에 매료되게 되었다. 이 구장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경기는 2006년 월드컵 당시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 2012년 UEFA 챔피언스리그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의 결승전 등이 있다. 경기장 안에는 큰 규모의 팬샵과 구단의 박물관이 있었다. 팬샵의 규모는 독일 최고의 명문구단답게 엄청 컸다. 또한 구단의 자체 박물관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구단이자 수많은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구단답게 볼거리도 많고 흥미로운 것들도 많았다. 2020년, 바이에른 뮌헨이 무려 5관왕을 달성했을 때의 트로피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우승컵들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고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박물관 내에 역사적인 순간마다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나로서는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아마도 이곳 박물관이 나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것 같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는 보물같아 보이는 곳이었다(김찬형, 20).



◎ 알리안츠 아레나 투어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참여하였고 특히 김민재 선수의 영향인지 한국인들도 많았다. 아레나 구장, 선수들 라커룸, 기자들 인터뷰실, 선수 입장하는 곳, 경기장 위까지 알리안츠 아레나의 생생한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 알리안츠 아레나를 보며 우리나라의 축구도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이현정, 19).



◎ 아레나 투어를 예약하고 갔는데 조금 늦었다. 구단 직원이 말하길, 투어가 시작되었으니 입장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정말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늦은 건 나의 잘못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이태수, 19).



◎ 자유시간에 알리안츠 아레나 투어를 미리 예약했다. 최대한 빠르게 도착했지만 이미 투어가 시작되어 아쉽게도 경기장 내부와 라커룸을 구경할 기회를 놓쳤다. 다행히 박물관은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큰 독일의 경기팀에 대표 선수로 뛴다는 사실이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김주상, 19).





◎ 뮌헨에서는 요운, 지유, 나 셋이 자유시간을 보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영국 정원에 갔다. 자유시간을 가지기 전 버스에서 가이드님이 겨울이라 영국 정원은 추천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획대로 영국 정원을 갔다. 가이드님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 아름다웠다. 눈밭에서 뛰어다니는 강아지들과 썰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눈 덮인 영국 정원의 드넓은 풍경을 보면서 정



말 독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리는 영국 정원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눈싸움도 하고 재밌게 놀고 다시 마리엔광장 쪽으로 가서 쇼핑을 했다(오유민, 20)

◎ 영국 정원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겨울왕국 그 자체였다. 주민들이 얼어있는 호수에서 썰매나 스케이트, 하키 경기를 하고 있었고 강아지들도 자유롭게 뛰어놀아서 관광객보단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엄청 넓은 공원이지만 여행 중 제일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장소이다(이시아, 21).



◎ 영국 정원의 풍경을 보자마자 너무 예쁜 나머지 친구들과 다 같이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게 되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공원이었고, 많은 눈이 강과 나무 위에 소복이 쌓여있었다. 퐁퐁 언 강 위에서 썰매를 타는 사람,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등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만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니 나도 이곳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건물과 차가 많은 곳에 있다가 조용하면서 사방이 탁 트인 곳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정감이 들었다(이선희, 20).



◎ 님펜부르크 궁전으로 향했고 대중교통으로 트램을 이용 해봤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방 적응했다. 님펜부르크 궁전은 엄청 크고 눈이 많이 와서 이뻐다 내부에 들어가는 건 7유로 정도였다. 내부는 설명을 좀 들어야 재미있을 거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궁전 뒤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도 정말 아름다웠다(임찬서, 18).

◎ 뮌헨은 단체 일정과 자유 일정 모두 마음에 들었다. 뮌헨에서의 날씨는 정말 완벽했다. 내가 독일 유학을 준비하며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인 뮌헨대학교에 의도치 않게 방문을 하게 된 일도 있고, 현지인 맛집인 것 같은 커리부어스트를 파는 가게에 간 것도 의미가 있었으며 눈 쌓인 영국 정원 또한 너무 좋은 구경이었다. 뮌헨에 있으니 다시 독일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독일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다(장요윤, 20).



탐방 7일차: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성

하이델베르크 대학 방문

구시가지 & 네카 강

하이델베르크 성



◎ 하이델베르크 남쪽 산중턱에는 네카 계곡에서 산출되는 적갈색의 사암으로 건축되어 검붉은 색을 띠는 큰 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 성에는 약 300년 동안 팔츠 선제후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으나 1693년 프랑스군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었다. 성을 재건할 계획이 있었으나 1764년 번개로 인한 화재로 다시 한 번 크게 손상된 이후 일부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성의 대부분은 손상된 채로 방치되었다. 19세기 말 복원 작업을 거쳐 오늘날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대에 인생무상을 상징하는 폐허가 된 거대한 성이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하이델베르크에 머물렀다. 그 중 아르니프와 브렌타노가 함께 여기서 민요 모음집인 〈소년의 요술피리(Des Knaben Wunderhorn)〉를 출간한 사실은 유명하다.



◎ 하이델베르크 성 관람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눈으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아쉽게도 내부 관람은 할 수 없었다.

◎ 하이델베르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위안을 준 장소였다. 사실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했던 날은 날씨가 좋지 않기도 하였고, 여행의 일정과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던 날이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성에 올라가 내려다본 마을의 전망은 지친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안개가 자욱하여서 그런지 더 운치 있고 고요해 보이는 그 마을들이 여행이 끝난 아직도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김수연, 19).



하이델베르크 대학

◎ 1386년에 세워진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신성 로마제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대학이다. 우측 사진은 1909년 설립된 하이델베르크 학술 아카데미(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건물이다. 이 아카데미는 인문학 기초 분야 연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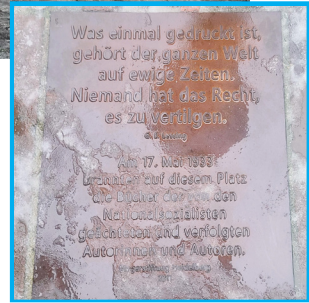


◎ 구시가지에 위치한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출입구 위에는 지혜와 학문의 여신인 팔라스 아테나의 청동 좌상이 있고 그 아래엔 'Dem Lebendigen Geist(살아있는 정신에게)'라는 모토가 있다.



◎ 본부 건물 뒷쪽 뒤편에는 13세기에 도시 요새의 방어탑으로 건설된 탑이 보존되어 있다. 지금은 마녀탑(Hexenturm)이라 불린다. 좌측 건물은 철학과 도서관이라고 한다.





◎ 본관 앞의 대학광장 바닥에는 훔볼트 대학 광장에서처럼 나치가 책을 태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동판이 있다. 동판에는 "일단 인쇄된 것은 영원히 세상의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없앨 권리는 없다.(Was einmal gedruckt ist, gehört der ganzen Welt auf ewige Zeiten. Niemand hat das Recht, es zu vertilgen.)"는 레싱의 글이 있었다.



◎ 하이델베르크 본관 강의실에서 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민채 선생님으로부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대학의 커리큘럼 및 대학 생활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시가지 & 네카 강



◎ 가장 가보고 싶었던 도시 하이델베르크에 왔다. 잿빛 하늘에 네카 강의 푸른빛이 산안개와 어울려 중세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를 담기 위해 호흡을 천천히 하며 필름 카메라 촬영할 때처럼 신중히 셔터에 위에 손을 얹었다(김지구, 21)



◎ 작고 아름다운 도시 하이델베르크는 성과 강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했다. 특히 성에서 내려다본 하이델베르크 경치는 잊지 못할 풍경으로 남아있다(이유현, 17).



◎ 후기 고딕 양식의 성령 교회(Heiliggeistkirche)는 뮌헨 성모 성당처럼 하나의 지붕이 측랑까지 이어져 신랑(nave, 중앙 통로) 상단에 채광창이 없는 홀 교회(Hallenkirche) 양식이다. 특이한 점은 신랑보다 측랑이 더 넓은 구조이다. 15~6세기에는 이 측랑에 독일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서관이었던 팔츠 도서관(Bibliotheca Palatina)이 설치되었다. 현재 도서의 대부분은 교황청 소속의 바티칸 도서관으로 이관되었고 일부만 대학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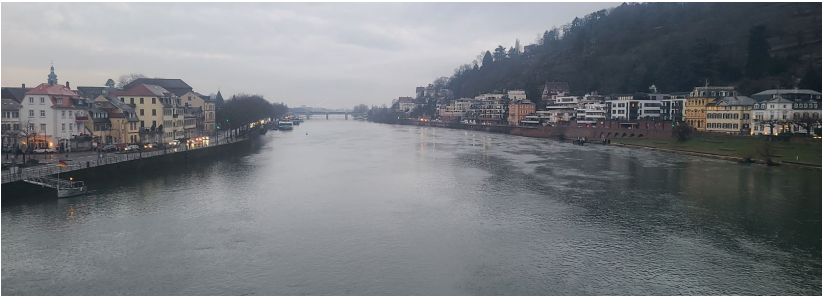




◎ 하이텔베르크는 눈이 즐거웠던 도시였다. 특히 다리 위에서 보는 도시의 풍경은 예술이었다. 눈으로 다 담아온 하이텔베르크는 정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다양한 상점들과 예쁜 건물들을 보고 독일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현정, 19).



◎ 카를테오도르 다리에서.



◎ 하이델베르크 대학 구내식당을 방문했다. 식당에서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단다. 학생들은 식당에서 스터디도 한다고 한다. 식당에서 슈퍼주니어의 소리소리가 나왔다. BTS나 뉴진스 노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된 슈퍼주니어라니... 아무튼 독일 대학 구내식당에서 케이 팝을 들으니 신기했다(이태수, 19).



◎ 하이델베르크 대학 구내식당

탐방 8일차: 워데스하임





뤼데스하임

프랑크푸르트

다시 인천으로

뤼데스하임

◎ 오늘은 문화탐방 마지막 날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나와 뤼데스하임을 들렀다가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지에서 잠깐 자유시간을 가진 다음 공항으로 가서 귀국하는 일정이다.

◎ 뤼데스하임과 건너편의 빙엔 지역부터 북쪽의 코블렌츠 지역까지 라인강 유역은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지역은 라인강 양안에 가파른 경사면의 포도밭, 깎아지른 기암절벽, 좁은 정착지, 언덕 위의 30개가 넘는 요새와 고성 유적 등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그 중 로렐라이는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와 그 노래로 유명해졌다. 낭만주의자들은 라인강의 풍광, 전설, 역사 등을 합리주의와 산업화에 맞서 모든 예술 장르에서 표현하였는데 이를 라인 낭만주의(Rheinromantik)라 한다.(지도: © wiki).



◎ 니더발트 기념탑(Niederwalddenkmal)은 뤼데스하임 뒷편 포도밭 언덕 위에 있는 니더발트 조경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71)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파리의 베르사유 궁에서 통일된 독일의 독일제국(4왕국, 18공국, 3자유시 등 25개의 국가와 2제국령(알자스-로렌)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의 수립을 선포하고 빌헬름 1세를 독일의 황제로 선언했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수상이자 독일제국의 수상을 겸했다. 이 거대한 기념탑은 1871년의 독일의 승리와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는데,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총 12년이 걸려 1883년 9월에 준공식을 했다.



◎ 니더발트 기념비의 높이는 약 38m, 무게는 75톤이며, 기단 위에 게르마니아 여신상은 12.5m에 달한다. 왕관을 들고 있는 게르마니아는 라인 강 건너편 프랑스를 향하고 있고, 그 아래엔 "독일 국민이 한마음으로 꺾기하여 이룬 승리와 1870~1871년 독일 제국의 재건을 기념하여(ZUM ANDENKEN AN DIE EINMUETHIGE SIEGREICHE ERHEBUNG DES DEUTSCHEN VOLKES UND AN DIE WIEDERAUFRICHTUNG DES DEUTSCHEN REICHES 1870-1871)"라는 문구가 있다.



◎ 하부 기단의 왼쪽에는 칼과 나팔을 든 천사상이, 오른쪽엔 올리브 가지와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 천사상이 있다. 왼쪽 천사는 전쟁의 알레고리이고 오른쪽 천사는 평화를 의미하는 알레고리이다. 두 천사 사이에는 133명의 인물을 실물 크기로 제작한 청동 부조가 있다. 부조의 중앙에는 말을 타고 있는 프로이센의 빌헬름 왕이 있고, 좌우에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 참여했던, 독일 각 지역 출신의 장군들과 귀족들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부조 위에는 독일 제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독수리상이 있다.



◎ 보드득보드득 밟히는 소리와 함께, 눈이 내린 산속, 고요한 그곳에 니더발트 기념비가 외로이 서 있다. 기념비 위에 쌓인 눈은 기념비를 성스럽게 만들어 준다. 기념비 꼭대기의 게르마니아 여신상을 보니 잠든 브뤼헨트가 연상되었다(김지구, 21).



◎ 튀데스하임의 포도밭 전경이 기억에 남는다. 원래 포도밭의 풍경을 생각하면 초록색의 이파리와 포도 열매가 달린 풍경이 떠오르지만, 그날 내가 본 포도밭의 풍경은 달랐다. 이날은 눈이 매우 많이 왔던 날이어서, 마른 가지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있는 풍경이었다. 기대했던 포도밭의 풍경을 볼 수 없어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눈이 쌓인 포도밭은 새로운 인상을 주었다. 여름의 풍경도 아름다웠겠지만, 겨울의 풍경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다(이선희, 20).



◎ 어제부터 눈이 많이 내렸다. 라인 강변의 포도밭 전경을 기대하면서 튀데스하임으로 갔는데 도착해서도 눈이 계속해서 펑펑 쏟아졌다. 눈으로 덮여있는 겨울왕국을 보는 듯했다. 엄청난 광경이었다(문일권, 21).





◎ 뤼데스하임은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되는 라인 강변의 작은 마을이다. 라인 강변 경사면의 포도밭과 여러 고성 유적을 품은 아름다운 풍광으로도 유명하지만 포도주 산지로도 유명하다. 독일 브랜디에 바인브란트(Weinbrand)라는 명칭을 붙인 후고 아스바흐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이용하여 독일 최초의 브랜디인 '아스바흐 우어알트(Asbach Uralt)'를 생산하였으며, 1924년에는 최초로 초콜릿에 브랜디를 넣은 프랄린을 개발하였다.



◎ 뤼데스하임의 드로셀 골목(Drosselgasse)에는 포도주 선물집과 기념품 가게가 즐비하다. 그러나 비수기라 유감스럽게도 모두 닫혀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 9세기 초에 건설된 유서깊은 도시 프랑크푸르트의 구시가지는 목골조 건물(Fachwerkhaus)이 가장 많은 도시에 속했으나 1944년의 공습으로 대부분 파괴되었다. 구도심의 역사적 건물은 대부분 재건축 또는 복원된 것이다. 구시가지의 중심은 15세기 이후 시청으로 사용된 건물인 뢰머와 그 앞의 광장인 뢰머베르크이다.

◎ 뢰머베르크 광장의 동쪽은 잠스탁스베르크(Samstagsberg)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목골조 건축물이 즐지어 있는데 모두 복원된 것이다. 광장 주변 건물의 많은 창은 관람객을 위한 것으로 이 광장에서 대관식 축하 축제, 무역박



람회, 크리스마스 시장, 야외 연극, 축구 우승 축하 축제 등 중요한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 잠스탁스베르크 오른쪽에 위치한 초기 고딕 양식의 구 니콜라이 교회(Alte Nikolaikirche)는 12세기 중반에 궁정 예배당으로 건립된 후 15세기 중반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2차 대전의 폭격으로 구도심지가 거의 완파되다시피 하였으나 이 교회의 피해는 경미했다.

◎ 뢰머베르크와 멀지 않은 곳에 바울 교회(Paulskirche)있다. 1848년 5월부터 1년 동안 이곳에서 독일 최초로 자유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입법기관인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Frankfurter Nationalversammlung)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회는 최초의 민주주의적 헌법을 공포하였으나 좌초되고 말았다. 바울 교회는 독일 민주주의 운동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간주된다. 현재는 전시관, 기념관, 공개행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교회 출입구 좌우에는 최초의 독일 국민의회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는 기념 동판이 붙어있다.



문화 탐방 후기



◎ 목감기에 나 혼자 고생해서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여행에서 크게 느낀 것은 독일 외식 물가는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라는 것과 독일보다 싼 한국의 대중교통의 편리성이었다. 독일 문화답사 도중 가끔 독일어를 사용했지만 듣기와 어휘가 크게 부족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이번 답사를 통해 언어 공부의 중요성과 독일이라는 나라를 수업으로 배우는 것과 달리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다(김상근, 17).

◎ 이번 독일 학술문화답사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혼자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일의 주요 관광지를 쉽게 둘러볼 수 있다는 점과 가이드님의 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그냥 건축물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각 도시에 대한 분위기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되어 더 기억에 남았다. 또 자유시간을 가질 때마다 주변의 박물관이나 카페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가이드님이 추천하는 곳을 알려주셔서 자유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독일의 겨울은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저서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는 느낌도 있었고, 더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두워서 위험하니 숙소 근처를 잘 둘러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다(김수연, 19).



◎ 독어독문학과 학생으로서 독일의 문화와 도시를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였다. 이번 독일 학술문화답사를 통해 여러 명소와 뜻깊은 장소들을 방문했다. 교수님과 인솔자님이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유 일정 동안 직접 경험하며 독일의 문화를 7박 9일 동안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독일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담긴 건축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분단을 겪고 있는 나라로서 독일과 공통점이 있고 통일의 과정을 겪고 해낸 독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여러 도시를 탐방하며 한 나라지만 도시마다 색다른 매력 있고 다른 느낌이 나서 신기했다(김주상, 19).



◎ 여행 끝엔 쓸쓸한 아쉬움이 남는다. 짧은 일정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보고 싶은 것도, 구매하고 싶은 것, 새로운 인연도 만나기 힘든 짧은 일정이었다. 난 이 아쉬움이 다시 한번 더 여행길 위에 끌어들이 것 같다. 이번에 못 가본 독일의 북서쪽 지역을 가거나, 자세히 보지 못했던, 베를린, 뮌헨, 하이델베르크, 드레스덴 등을 오랫동안 여행하고 싶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고자 공부하여 재방문하고자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 말이다(김지구, 21).

◎ 일정도 너무 잘 짜여져 있었고 가이드님께서도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설명을 듣는 내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독

일이 1월이어서 많이 추웠는데 MP3로 개개인이 따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해외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답사를 하면서 전부 맛있는 곳만 갔기에 정말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유시간도 충분하게 있어서 내 입맛대로 독일을 다닐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김지유, 22).



◎ 축구를 좋아하는 나에게 이번 독일 여행은 정말 큰 기억을 남겨 주었고 또 큰 여운을 남겨주기도 하였다. 축구라는 스포츠에 미칠 듯이 열광하는 독일이라는 나라답게, 하부 리그 팀들의 홈구장도 어지간한 나라의 최상위 리그에 속해 있는 팀들의 홈구장보다 훨씬 크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김찬형, 20).



◎ 이번 문화탐방의 장점은 기존에 몰랐던 독문과 형 누나들 그리고 동기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 어색함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도 독일 오기 전에 한 번씩은 얼굴을 봐서 덜 어색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다. 7박 9일이 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금방 갔다.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1달이었으면 좋겠다. 굳이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한 도시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다는 게 제일 아쉬웠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독일을 다시 한번 오고 싶다(문일권, 21).

◎ 1주일뿐인 짧은 탐방기였다만, 겨울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장소들과 설명들을 빠짐없이 돌아볼 수 있는 보



람찬 일정이었다. 베를린에서 다하우 강제수용소, 뮌헨과 드레스덴, 마지막 프랑크푸르트까지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대되는 일정이었고, 새로운 경험들을 했으며, 날마다 새로운 맛을 위장에 채워넣을 수 있는 멋진 기회였다.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할 만큼(서승현, 17).

◎ 7박 9일 동안 독일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진으로만 봤던 고딕, 바로크 양식과 같은 교회 건물과 과거 분단 역사의 현장 그리고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가이드님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유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른 장소를 둘러볼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또한 겨울이다 보니 해가 짧아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해서 유감이었다(신성철, 19).

◎ 이번 독일 문화탐방은 독일어 공부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내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우리 과 사람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올해 학회장으로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학과 사람들이 다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서 앞으로 다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오유민, 20).





◎ 독일의 풍경과 음식, 독일인들과의 소중한 만남,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준비를 하게 해주었다. 독일 여행으로 열린 문을 통과하며, 더 넓은 세계에서의 도전에 기대해 보는 마음이 생겼으며, 이런 도전들은 나의 삶에 더 큰 의미와 풍요로움을 안겨줄 것이라 믿는다. 독일에서의 경험은 나를 더 넓은 시야로 이끌어주었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통해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독일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나만의 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유혜인, 19).

◎ 학술문화답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글과 그림으로만 보던 건물, 생활문화, 마켓, 교통수단 등 다양한 현지의 모습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알게 되고,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더욱 기억에 남는다. 또한, 가이드님의 설명도 같이 들으니 이해도도 높아지고, 기억에 더 오래 남았다. 또한, 간단한 인사말을 직접 말해봄으로써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



도 가질 수 있어서 나에게서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에는 간단한 문장을 말해볼 수 있도록 독일어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함께 세운 계획을 통해 여행을 하다보니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더욱 기억에 남는다(이선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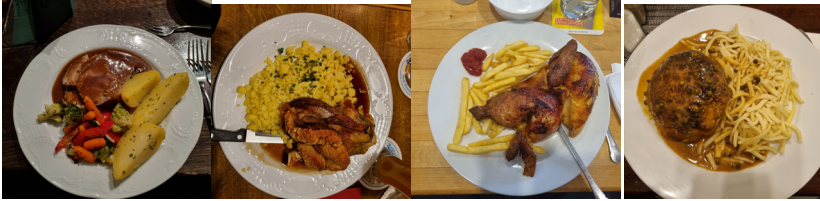
◎ 여행에서 은근 중요한 팁문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팁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소 신경쓰지 않던 걸 신경써야 하나까 은근 스트레스였다. 화장실 앞에 팁 무인기가 있는 것도 신기했다. 돈을 내고 화장실을 쓰니까 어색했는데 아시안 식당을 가면 직원이 팁을 안 받으려 하는 게 웃겼다(이시아, 21).

◎ 독일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현지 문화와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큰 과제였다. 다음에 또 방문한다면, 독일어 공부에 더 신경 써서 현지인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 이번 답사는 학문적 성장과 함께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독문과 친구들과 함께한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유현, 17)

◎ 아쉬웠던 점은 너무 성당과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유명한 것은 알겠지만 일정의 반 이상이 성당과 교회를 간 것이라 아쉬웠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은 드레스덴이었다. 내가 생각한 유럽이랑 똑같았기 때문이다(이태수, 19).

◎ 다양한 도시의 풍경과 설명을 들으며 더욱 편하게 답사를 즐길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 독문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뿐만 아니라 진짜 독일인과 대화를 하며 그동안 배웠던 독일어를 사용해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만 배우던 독일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이현정, 19)



◎ 독일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다. 독일에서의 내 미래가 더 이상 그려지지 않는 듯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일어를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았다.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하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좀 더 잘 썼더라면 싶었다(장요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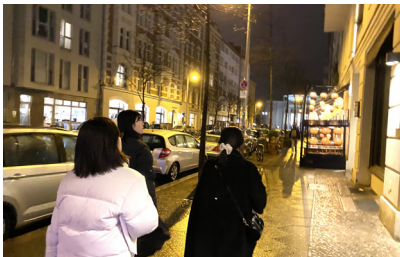
◎ 여행을 힘들게 했던 것들 중 하나는 추위였다. 체감상 한국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와 비슷하다고 느꼈고 개인적으로 편도가 약한 편이라 찬 공기로 인해 기침을 자주 해서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했고 실망스러웠던 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은 점이였다. 하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되너 케밥, 슈니첼, 슈바인스학세, 슈페츨레 등 수업에서 배웠던 독일 음식을 경험해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웠다. 학과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고 개인이 가는 여행과 달리 색다른 경험 이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허예진, 20).



우수 소감문

함께 해서 행복했다

이른 아침에 도착한 인천공항부터 조금 일정이 더 길었으면 한 아쉬움을 남긴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일주일 사이 생긴 일들은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 단체로 가는 여행이 조금 긴장되었던 나는 가기 전 공책에 목표를 적었다. 이 독일 여행이 감사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즐기고 싶었다. 마음을 열고 즐기니 전에 잘 모르고 지냈던 언니들, 친구와 친해질 수 있었고 덕분에 내가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재작년, 난 베를린에서 3주를 지냈다. 도착한 일주일 동안은 심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도전하고 싶어 온 이곳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걸었다. '지내면서 계획을 세우지 뭐.'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우연히 한 카페를 찾았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행의 매력을 발견하고 여행의 온도 또한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할 때 행복하다. 혼자 여행하는 행복이 있다면 함께 하는 행복도 있었다. 베를린, 나의 첫 도전과 선택의 장소, 다시 오니 정말 반가웠다. 무작정 걷고 헤맸던 길과 모든 게 새로웠던 파릇파릇한 기억이 이들 동안 내 곁에 아련하게, 그리

고 뚜렷하게 머물렀다. 추운 베를린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 이 아늑한 카페를 일행에게 추천하고 싶었다. 우리는 자유시간 첫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다. 포츠담역에서 조금 헤맸기에 긴장한 상태로 도착했다. 그런데..자리가..없다. 추운 날씨에 비까지 오는 밖에서 기다리는 일행을 두고 난 조마조마했다. 2년 전, 안개가 낀 마음에 구름을 개개 한 인정 있는 사장님은 여전히 친절하게 카페의 만석을 알려주며 우리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혹시 근처 카페라도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던 와중 갑자기 사장님이 기다려보라고 했다. 손님 한 팀이 막 계산을 하려고 자리를 일어났다. 헐. 한팀이 앞으면 적어도 1시간은 기본이어서 대기시간이 긴데 우리가 도착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자리가 생긴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긴장이 확 풀리더라. 함께 이곳을 와준 팀원에게 정말 고맙았다. 혼자 왔을 때 베를리너를 만나서 행복했다면 이번에는 예진, 선희 언니, 시아와 경험을 함께하여 행복했다. 옷, 문구 가게가 오후 7시면 닫아서 우린 빠른 걸음으로 다음 장소로 향했다. 빈티지 가게에 도착하고 예전에 들린 장소라는 걸 알아챘다. 그때는 별 감흥 없이 바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일행과 옷 얘기를 하며 재미있게 구경했다. 처음 왔을 때 계획 없이 돌아다녀 내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던 거리를 다시, 친구들과 오순도순 담소를 나누며 걸으니 정말 신기했다. 짧은 자유시간에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들렸고 저녁 간식으로 되너를 포장해서 숙소에서 나눠 먹었다. 음식뿐만 아니라 함께 경험 또한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

베를린 다음 장소였던 드레스덴에서는 그을린 건물들과 시위대가 눈에 들어왔다. 2차 세계대전 때 도시 전체가 폭격으로 인해 소멸했음에 충격을 받았다. 도시가 그을린 흔적으로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폭격으로 인해 부서진 건물을 아예 새로 짓지 않고 잔해를 보관하고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복원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비록 도시는 검게 그을렸지만, 인간의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 일어난 도시의 존재는 밝게 느껴졌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행진하는 사람들 옆을 지나갔다. 독일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시위를 하는지 궁금했다. 건너편을 구경한 다음 다시 돌아왔을 때도 대성당 앞에 시위대가 아직 모여 있었다. 일행이 다음 목적지를 찾는 동안 나는 잠깐 시위대로 향했다. 바닥

에 메시지를 적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같이 참여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들과 함께 바닥을 색칠하면서 무슨 시위인지 물어봤다. 환경, 인권 등 관련된 다양한 단체가 모여 극우에 반대하는 시위라 설명해주었다. 그때까지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찾아보니 독일 전역에서 일어난 극우 정당(AfD)에 반대하는 시위 중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난 10일 AfD 당원들과 극단주의자들이 이주민 수백만 명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독일 전역에서 연일 대규모 인파가 반(反)이민 논의에 항의하며 거리에 나온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우 정당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증폭됐다고 한다. FFF(Fridays for Future)에 따르면 이날 드레스덴에서 혐오에 맞서 일어나 화합, 관용, 민주주의를 외치며 행진한 인파는 약 2,000명이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등 독일의 생생한 사회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 왼쪽 사진에서 시위대가 들고있는 플래카드에는 "LIEBE(사랑) KLIMAGERECHTIGKEIT(기후) WELTOFFENHEIT(정의) ZUKUNFT(미래) NACHHALTIGKEIT(지속가능성) TOLERANZ(관용)"라는 구호가 적혀있다.



저녁을 먹기 전 우리는 어느 카페로 들어가 추위를 녹였다. 사과 주스는 유리잔에 나왔는데 그 잔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우리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카페에서 유리잔을 이용한 다각도 시각 예술을 펼쳤다. 얼굴에 갖다 대면 생기는 굴곡으로 작아진 입이 얼굴과 어울리지 않아 웃긴 모양을 냈다.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배가 아팠다. 역사의 흔적을 머금고 시대의 교훈을 전달하는 드레스덴 도시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지쳐서 들어간 곳에서 의도치 않게 터진 웃음은 드레스덴에서의 추억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정해진 루트를 따라 도시를 관광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자유시간에 우리가 직접 만든 추억들이 여행을 한층 더 풍요롭게 했다. 내가 여행을 하며 웃을 수 있었던 건 팀원과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드레스덴에서 시위 참가자와 소통할 때 옆에서 기다려주고 무리를 벗어나 다닐 때도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나를 존중해주었기에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이동 중 무리를 벗어나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언제나 팀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준 예진 언니, 동생들의 짓궂은 장난에 주인공이 되어 주며 지쳤을 때마다 다시 여행에 집중할 수 있는 해피 에너지를 준 선희 언니, 호텔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에 담아준 시아, 모두에게 정말 고맙다.



눈 덮인 영국 정원은 고요했다. 탁 트인 넓은 공간에 강아지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사람들은 얼은 호수 위에서 하키와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 고요함과 여유로움은 단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뮌헨의 녹색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정원은 유럽 최대 도시공원으로 여유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인 만큼 추운 날씨에도 꽤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다. 갑자기 퍼그 한 마리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얼마나 귀엽던지 진짜 데려가고 싶었다. 넓게 펼쳐진 겨울 풍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사진 촬영을 했다. 재미있게 여러 포즈를 잡고 놀다가 멀리서 산책 중인 골든 리트리버가 눈에 띄었다. 강아지도 우리를 봤는지 빠르게 달려와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예상하지 못한 강아지들의 귀여움에 우리는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우리는 현지인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숨 트이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동물과 같이 자유롭게 뛰

어노는 아이들이 있는 공원에서 나도 모르게 연신 웃음만 짓다 보니 어느새 푸른 하늘이 노을로 물들었다.



처음 독일 갔을 때 쾰른에서 프라이부르크로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지역들은 아쉽게 다 지나쳤다. 그래서 이번 탐방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장소들을 방문하여 진짜 좋았다. 뤼테스하임도 그중 하나였다. 프랑크푸르트 호텔을 나오니 눈바람이 불고 있었다. 우리가 뤼테스하임 기념비를 관광하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내렸다. 탐방 학생으로서 사실 날씨 때문에 불평할 일은 없었다. 애초에 이 높은 곳을 버스를 타고 편하게 올라와 있는 거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기에 눈 오는 뤼테스하임을 마음껏 즐겼다. 독일의 추위는 한국과 조금 다른 거 같다. 밖에 오래 있으면 뼈가 시린 느낌이다. 이런 날씨에 가이드님은 베를린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끌며 지역 역사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다. 이걸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래 서 있으면 정신이 희미해지는 추위에도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가이드님이 멋있었다. 초반에는 버스에서 조용히 쉬면서 가고 싶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역사, 사회 등 독일의 다방면 모습을 멈추지 않고 설명해주는 가이드님에게 마이크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한번 부탁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예민했다. 독일에 오래 거주하신 가이드님의 설명 덕분에 독일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고 정말 감사했다.

오랜만에 폭 잠이 들었다. 잠을 기다릴 틈도 없이 눕자마자 눈꺼풀이 감겼다. 첫날 새벽에 일어나 밥 로스 아저씨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 진짜 개운했다. 살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아침을 일어난 경우는 드물었다. 7박 9일 동안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루의 몸 상태



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깨달았다. 한 좌석에 앉아서 13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는 게 이리 어려울 줄이야. 버스 이동도 많아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유익하고 가치 있는 독일 탐방이었다. 평소 자신이 머물던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를 찾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여행의 매력이라 생각한다. 단체 여행이 재미없을 거란 나의 선부른 판단을 내려놓는 건 내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였다. 이 여행을 통해 학과 사람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이다솔, 21)

편집 후기

2024년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조교 1명과 학생 22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독어독문학과 소속 인원이 독일 문화탐방 여행을 다녀왔다. 학교 측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참가자들은 각각 2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즐거운 여행이었지만 마냥 즐거울 수만 없는 소위 ‘웃픈’ 여행이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독어독문학과는 202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 폐과 수순을 밟고 있다. 학교 측에서 지원받은 적지 않은 경비는 구조조정 인센티브, 말하자면 폐과 인센티브인 셈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유형의 지원을 바라느냐는 대학본부 측의 제안에 학생들은 뜻을 모아 독일 문화탐방을 제안했다.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학생들의 제안을 선뜻 수용해 준 점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금이 학과로 지급되는 줄 알았으나 2천만 원 이상의 경비를 사용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함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입찰 기간도 1달, 유찰될 경우엔 재입찰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다. 9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짜고 승인을 받고 시험 기간을 피하고 입찰 과정을 고려했더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기간이 1월이 된 것이다. 학기 중에 성사될 수 있었다면 불참자가 없었을 터인데, 방학 기간이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생 몇 명과 송소민 초빙교수님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다.

겨울의 유럽 여행은 여러모로 힘들다. 서머타임으로 인해 겨울엔 4시면 어둑어둑해진다. 겨울엔 날씨도 고약하다. 지난 12월에도 폭설로 인해 유럽 대다수의 공항과 철도가 마비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여행 기간 동안 비와 눈이 자주 왔지만 도로나 공항이 통제되는 최악의 사태를 겪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동절기엔 눈비로 인해 여러 명소가 폐쇄되는 경우가 잦다. 날씨로 하이델베르크에선 성 내부를 관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눈 때문에 위험하다고 관람객을 받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유럽 물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된 탓으로 대부분

의 문화탐방 프로그램은 실외 관람이었다. 베를린 대성당과 하이델베르크 성 두 곳만 실내 관람이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성 내부를 관람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웠다. 또한 추위로 인해 겨울 질환에 걸린 확률이 높다. 김상근 군이 심한 감기에 걸려 이틀 동안 호텔에서 머물거나 버스에서 쉬어야 할 정도로 매우 고생했고, 그밖에도 가벼운 감기로 고생한 학생이 몇 명 있었다.

또한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겨울 방학 기간에 실행되었기 때문에 여행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의미의 소책자를 제작하는 작업을 학생들 손으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방학 중에 강릉에 있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고로 이 편집작업을 학과장인 내가 지금 몇 주 동안 밤잠을 아껴가며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여행이 끝난 후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해야 학생들의 의견도 고루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적인 의미도 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여러 학기 동안 독일어와 독일 문화에 관해 강의실에서만 배웠던 학생들이 독일 현지에서 책이나 영상에서 보고 들었던 독일의 도시와 문화 유적 그리고 일상의 모습을 현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출발 전부터 들뜬 모습을 보였다. 문화 탐방 여행이 공지되자 학생들은 저마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도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했다. 학생들 중에는 문화 탐방이 공지되자마자 일정에 맞춰 베를린 필하모니 연주를 예매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방문하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기원 선생님과 윤민채 선생님을 만나 각 대학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독일 문화의 현장 체험도 이번 문화 탐방 여행의 큰 소득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소득은 이번 여행이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여행에 참여한 많은 학생이 이런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금 학생들은 말하자면 '코로나 세대'라 일컬을 수 있다.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했던 경험이 체화되어 독특한 개인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다.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서 새로운 친구 사귀기는 일이 번거롭고 힘들다. 같은 강의실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했던 학생들끼리도 오가며 인사만 할 뿐이다. 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후배를 지칭하면서 극존칭을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몇 년 동안 같은 학과에서 수업을 해왔음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니 놀랄 일이다. 지난 학기에 우리 학과에서는 엠티를 가지 않았다. 재미가 없어서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혼자서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귀찮게 새로운 친구를 굳이 더 사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회에 진출한다면 코로나 세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학과나 학교에 애착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중간 탈락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도록 여행 기간 중 첫 3일 동안은 이미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방(2인 1실)을 사용하고, 3일 차부터는 무작위로 키를 배당해서 같은 키를 받는 사람끼리 룸메이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여행 3일 차가 되니 어제 까지만 해도 서먹서먹해 하던 학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송교수님과 프로그램을 짜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힘들겠지만 많은 도시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숙박 곁핼기식으로라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다양한 것을 체험하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마음에 든 도시를 찬찬히 탐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7박 여행에서 무리한 일정이지만 7개 도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베를린과 뮌헨 일정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도록 일정에 포함시켰다.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공부하라고 공지했다. 안전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2인 이상 조를 이루어 움직이도록 했다. 공식 프로그램에 따른 수동적인 체험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능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짧은 시간이나마 마련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버스나 전철도 직접 표를 사서 타 보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다녀오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모두 금방 익숙해졌다. 학생들은 자유시간에 취향에 따라 카페, 맛집, 쇼핑, 박물관, 축구장, 공원, 궁전, 전망대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이 소책자가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송소민 교수님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유감스럽게도 미리 약속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다. 여미연 조교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여 문화탐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자 중의 한 사람이다. 김지구 군은 문화탐방 일정 내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다. 이 책자에 사용된 대부분의 사진은 김 군이 찍은 사진이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참여한 학생 모두 문화탐방 소감문을 제출해주었다. 모두 신진 못했지만 학생들의 글이 없었더라면 이 책자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모두 정성스런 글을 써주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다솔 양과 김주상 양의 글과 이지원 양의 동영상상을 우수 소감문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으로 칭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이 독어독문학과 학생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아무쪼록 세월이 지나서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

(학과장 황승환)

